“원료 수급에 비용 부담까지 가중”…식품업계 위기 몰려

하반기도 원재료 수입 부담 가중 예상…밀가루·식용유 고공행진

치솟는 물류비·인건비 상승으로 고민↑…판가 인상도 쉽지 않아

올 하반기에도 식품업계의 제품 생산 비용이 급증할 조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뛰고 있는 데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물류비 증가도 기업들을 힘들게 한다.

이 같은 생산 비용 증가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판매 가격 인상이 번질 수 있다.

이런 가격 인상은 그대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부담을 크게 느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경우 판매 가격을 올리고도 실적이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원재료 수입 부담 가중 예상…밀가루·식용유 고공행진

올 하반기로 갈수록 식품 업계의 원재료 수입 부담은 더 가중될 조짐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여파로 지난 4~5월 밀과 옥수수 파종을 제때 하지 못하며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국제 곡물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사료용으로 쓰이는 곡물 가격 폭등이 국내 축산업 분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사료용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가장 먼저 나타날 조짐이다.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제조사들은 올해 3월 가정용 밀가루 가격을 최대 33% 인상했다. 20㎏은 밀가루 한 포대는 지난해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 B2B(기업간 거래) 밀가루는 국제 시세를 적용해 과자, 빵, 라면 등 가공 식품업체들에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비축해 놓은 원부자재가 소진되는 시기부터 생산 원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식용유도 갈수록 기업들의 부담을 죄고 있다. 18ℓ 식용유 한통 가격은 지난해 3만5000원에 거래됐지만 올 들어 6만5000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공급 비중이 높은 해바라기유는 9만~1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치솟는 물류비·인건비 상승으로 식품업계 고민↑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도 식품 업계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올 초 배럴당 70달러 수준이었던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3월 들어 123.70 달러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8월물 인도분 WTI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2020년 1분기에 WTI가 배럴당 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된 것을 고려할 때 유가는 2년 만에 5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 물류비용도 꾸준한 증가세다.

국제 물류비의 기준이 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3월 2570.68포인트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초 5000.00 포인트를 넘었다. 최근에는 4000.00 포인트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류비용이 높다는 평가다.

인건비도 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는 9160원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상승한다.

식품기업의 경우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다. 식품 원료의 경우 대부분 오랜 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할 수 밖에 없다. 물류비 상승이 제품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식품 공장이 대부분 자동화돼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산업 대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공정이 많다. 인건비 상승분이 매번 기업들의 원가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판매가 올리고 싶은데 소비자 지갑 닫힐까 ‘걱정’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수 있는 점도 식품 업계 위기감을 높이는 요소다.

주요 식품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주요 제품군 판매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판매가 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2년 연속 판매가를 조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원재료, 물류비, 인건비 등 원가 상승 압박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에는 라면, 과자 등 밀가루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캔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과 원유 가격 인상으로 유제품 가격까지 인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서민들이 주로 찾는 식품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경우 실물 경기가 제자리를 맴돌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로 경기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식품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 판매율이 낮아져 실적이 떨어지는 기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주요 식품 기업들은 제품 판매가 인상을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제품 가격을 올렸다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여행·캠핑에 한몸 ‘조명·빔·스피커’

감성 찾는 MZ 사로잡아라…제품력·감성 장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자 야외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인 만큼 여행, 캠핑 등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 추세다.

야외에서 사용하기 알맞은 콤팩트한 사이즈에 실용적인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활용성·편리성에 감성까지 더해줄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캠핑이나 피크닉 등 야외활동에는 조명이 필요하다. 레드밴스의 ‘나이트럭스 랜턴’은 USB(이동식저장장치)로 충전 가능한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다.

필요에 따라 손전등으로 휴대할 수 있고 손잡이로 원하는 위치에 거치해 취침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취침등 모드로 사용 시 안락하고 은은한 전구색(3000K)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이 가능하다. 손전등으로 사용 시에는 밝고 환한 주광색(6500K)을 지원한다.

4시간 풀 충전 시 취침등은 16시간, 손전등은 5시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해 야외에서 급하게 핸드폰이나 휴대용 선풍기 등을 충전해야 할 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조명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휴대용 빔 프로젝터는 캠프닉(캠핑+피크닉) 감성을 끌어올리기 좋다. 뷰소닉의 미니빔 프로젝터 ‘M1+G2’는 콤팩트한 크기지만 성능은 좋다.

이동이 간편하고 일체형 스마트 스탠드가 있어 별도의 거치대 없이 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스마트 스탠드는 투사각도를 360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을 땐 렌즈 보호 커버의 역할까지 한다.

자체 운영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만 있다면 다양한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스크린 미러링 기능으로 안드로이스 스마트폰과 아이폰을 무선으로 연결해 프로젝터 화면으로 넓게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듀얼 하만카돈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 생생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한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 오디오를 출력할 수 있다. 최대 6시간 사용한다.

야외활동 중 감성적인 분위기를 완성하는 건 음악이다.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책임질 휴대용 스피커가 필요한 이유다.

소니코리아의 X-시리즈 블루투스 스피커 ‘SRS-XE300’과 ‘SRS-XE200’은 콤팩트한 크기에도 강력한 사운드를 자랑한다. 작은 사운드는 더 고르게 멀리 퍼뜨리고 큰 사운드는 왜곡과음 손실 없이 퍼뜨려 스피커의 앞·측면 어디에 있든 선명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SRS-XE300’은 1.3kg, ‘SRS-XE200’은 0.8kg의 무게로 휴대도 간편하다. 완충 시 SRS-XE300은 24시간, SRS-XE200은 16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10분 충전 시 70분 재생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휴대하기 좋은 소형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는 추세”라며 “휴대성은 기본이고 작지만 강한 제품력에 감성까지 더해진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만큼 관련 업계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삼성전자 “AI 아티스트와 함께 갤럭시 북 꾸며봐요”

오늘부터 9월25일 ‘갤럭시 북 아트 프로젝트’ 진행

삼성전자가 25일부터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나만의 AI 아트 작품’으로 갤럭시 북을 꾸며보는 ‘갤럭시 북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갤럭시 북 아트 프로젝트’는 갤럭시 북2 시리즈와 ‘카카오브레인’의 AI모델을 기반으로 탄생한 AI 아티스트 ‘칼로(Karlo)’가 함께 한다. 칼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화풍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끄는 AI 아티스트다.

학습을 통해 무한한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칼로와의 협업은 자신만의 취향을 중시하고 표현하기를 즐기는 MZ세대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갤럭시 북 아트 프로젝트’는 삼성닷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가 ‘장소’, ‘행위’, ‘오브제’ 각 키워드를 순서에 맞춰 자유롭게 입력하고 팝아트, 일러스트 등 원하는 화풍 스타일을 지정하면 AI 아티스트가 ‘나만의 AI 아트 작품’을 즉시 만들어 준다.

‘나만의 AI 아트 작품’은 다운로드를 통해 개인 소장도 가능하다. 삼성닷컴에 있는 커스텀 스튜디오를 통해 갤럭시 북2 시리즈 제품 상판 또는 케이스에 붙이는 스킨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더욱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자신의 SNS에 8월 31일까지 ‘나만의 AI 아트 작품’ 또는 이를 통해 만든 스킨을 올리면 갤럭시 북2 시리즈, 커스텀 스킨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갤럭시 북2 시리즈를 이미 구매한 고객 또는 신규 고객 대상, 선착순 1만명에게는 AI 아티스트를 통해 만든 북2 시리즈 커스텀 스킨을 4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갤럭시 북 아트 프로젝트’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삼성 디지털프라자 홍대본점 커스텀 스튜디오에서 AI 아트 작품을 활용해 나만의 북 제품을 직접 제작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남다른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갤럭시 북 아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치솟던’ 광주 휘발유가격 1900원대 진입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더해져 2100원대까지 치솟았던 광주지역 휘발류 가격이 20여일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951원으로 1주일 전에 비해 57원이 내렸다.

경유 평균 가격도 2035원으로 1주일 전에 비해 44원 내렸다.

기름값이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6월 30일 광주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2123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여일 사이에 170원이나 떨어졌다.

경유도 지난 6월 30일 2150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여일만에 115원 하락했다.

전남지역 휘발유 가격도 지난 6월 30일 ℓ당 2140원이던 것이 22일에는 137원 내린 2003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유도 지난 6월 30일 2163원에서 22일에는 2070원으로 떨어지면서 93원 하락했다.

이슬비 기자

“캠핑은 먹으러 가는 거지”…‘먹핑’ 필수템 인기 급등

캠핑인 일명 ‘먹핑(먹방+캠핑)’트렌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대로 즐기지 못한 캠핑의 재미를 만끽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캠핑인 일명 ‘먹핑(먹방+캠핑)’이 트렌트로 뜨고 있다.

이에 아이스박스에 간편하게 챙겨 캠핑의 무드와 입맛은 살리고, 여름 더위는 식혀줄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장수의 ‘달빛유자’는 다양한 안주와 페어링이 가능해 캠핑족들의 입맛을 사로 잡고 있다.

달빛유자는 100% 국내산 쌀과 고흥 유자, 천연감미료 등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고품질 국내산 고흥 유자만을 엄선해 착즙한 유자과즙을 넣어 상큼하면서 톡쏘는 청량감을 준다.

유자의 진한 향과 맛이 입안에 오래 남아 상쾌하고 달콤한 산미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SPC삼립이 선보인 ‘하이면’ 냉칼국수 3종도 캠핑족에게 인기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인들의 레시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천식 비빔 냉칼국수’, ‘순창식 명인 비빔 냉칼국수’, ‘제주식 동치미 냉칼국수’ 등 3종으로, 캠핑장에서 손쉽게 끓여 먹을 수 있다.

캠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베큐 밀키트도 다양한 구성으로 먹핑족 공략에 나선다.

가정간편식 업체 프레시지가 제주도 고기명가 ‘흑돈가’와 함께 만든 캠핑세트 및 랍스터&돈마호크 캠핑 세트 밀키트는 출시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캠핑세트는 고소한 육즙이 일품인 제주산 백돈 삼겹살과 쫄깃한 가리비, 탱글한 새우, 그린홍합을 함께 담았다.

랍스터&돈마호크 캠핑 세트는 튼실한 도끼 모양의 돈마호크를 통째 넣은 것이 특징이다. 흑돈가만의 시그니처인 멜젓을 비롯한 다양한 소스도 함께 구성해 바비큐 요리에 감칠맛을 더해준다.

업계 관계자는 “캠핑의 꽃은 맛있는 음식”이라며 “즐겁게 먹고 마시는 먹핑과 어울리는 다

양한 제품들과 여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유나 기자